

마음, 대로(大路) 가는 길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백범 김구

그저께는 찬거리가 떨어져 식탁용 김을 주문했다. 하루만에 도착하는 로켓배송이라더니 저녁이 이슬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고개를 가웃거리다 고객센터에 신고부터 했다. 배달원의 실수로 다른 집 문앞에 놓고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듣게 되었다. 어쨌든 분실한 택배를 되찾았으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다음날, 또다시 똑같은 김이 배송되었다. 아무래도 배달원과 고객센터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본의 아니게 두 봉지가 된 김을 앞에 놓고 나는 머뭇거렸다.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하나? 순간 귀찮고 성가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겨우 몇 천원짜리잖아. 비싼 것도 아닌데 덤이라 생각하고 그냥 있자, 내 안의 누군가가 비밀스럽게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오지 않는 물품은 서둘러 신고했으면서 더 받게 된 물품 처리는 왜 귀찮다고 느끼는 것인지. 나도 사람이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길이 없었다.

<반부패·청렴 사연 수기집>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 것은 아마도 저간의 사정이 그러했던 탓일 게다. 이야기의 힘이란 그런 것일까. 스물 세 분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따라 읽는 동안, 자꾸만 어제 받은 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별것 아닌 거라고 치부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사소한 욕심에 양심을 저버렸구나. 그게 뭐라고 더 가지고 싶었을까. 외려 작은 횡재라 여기며 내심 좋아했던 어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부끄러웠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지만 나 자신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깨달음은 쓰라린 것이었다. 나와 동시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저마다 진솔했다. 공직 일선에 계신 분들의 특이한 경험담도 있었지만 일반인의 경험담도 같이 있어 공감감이 두루 되었다. 딱 봐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네, 하

는 느낌을 주는 사연도 더러는 있었지만, 그만큼 내면의 중심이 단단한 결과였겠거니 생각하니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바르게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청렴이라는 말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직 사회인 군대에서 식료품을 사적으로 반출하는 고위직에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발언할 수 있는 용기란 아무나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 사연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군대 내부의 준엄한 분위기를 대리 경험하는 기분이라 특히 마음에 남았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던 주인공의 모습에 감화된 대장이 반성과 사과를 보여주는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지위의 높음을 남용한 자신의 과오를 전 대원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용기와 안간힘이 한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전이되는 풍경을 본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다.

사람들은 손윗사람의 태도를 보며 자신의 몸가짐을 다시 고치곤 한다. 지독한 가난을 견디면서도 불법 어획인 삼중망을 쓰지 않았던 어부 아버지를 마음의 등대로 여기며 자란 자식은, 등대를 관리하는 공직자가 되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고백했다. 어린 시절, 철모르던 자신이 어렵사리 일해 번 돈으로 드린 촌지를 받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선생님을 보며 자란 주인공은 회사 내부 문서를 빼달라는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며 청렴한 자세를 잊지 않으려 했다. 두부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아들을 나무랐던 어머니를 보며 소방공무원이 되어서도 금품은 절대 받지 않은 아들의 이야기도, 길에서 청소하다 주운 돈을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자그마한 사례마저 마다한 어머니를 보며 공직의 참뜻을 배운 아들의 이야기도 그러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레 내려오는 배움의 이야기가 아름답다 느꼈다.

그런데 이런 전이의 풍경이 나이나 서열과 무관한 사례도 있었기에 더 아름다웠다. 국립공원 매표소 표검원으로 재직하신 분은 무료로 출입하시는 어머니를 묵인할 수 없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사비를 털어 사찰 신도증을 만들었다. 방역 아르바이트 학생은 대충 하라는 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묵묵

히 양심적으로 자신의 일을 했다.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 대학생 아들의 청렴한 태도를 보고 감명을 받아 향응을 거절한 어머니도, 6살 아들이 알고 있는 정직의 자세를 보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어머니도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와 서열에 상관없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대하는 온당한 자세를 보며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려 애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수기집을 읽으며 일상에서 고마운 마음을 온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순전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에도 그것이 적법한 일인가, 상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아닌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이 ‘청렴에 다음은 없다’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거저 받지 않았던 모습,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도와준 답례로 내미는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마다하고 정성 가득한 손편지만 받았던 공익법무관의 모습, 고마운 마음에 학부모가 아이에게 들려보낸 음료수를 돌려보낸 유치원 교사의 모습, 거둬 도움을 받아 고맙다고 내민 식사비를 돌려주느라 애쓰던 소방관의 모습, 환자가 고맙다고 주고 간 떡을 받지 않으려 고민하던 국립병원 간호사의 모습. 이들의 사연을 읽으며 새롭게 시행된 법의 파급력과 그로 인한 공직자들의 고충이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마음만 받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고 받는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도처에 사사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 게다.

그러나 한번 타협한 양심은 새하얀 눈길 위에 찍힌 발자국과 같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아주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사소한 유혹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혼든다. 그 흔들림을 버티고 중심을 찾지 못하면 중국에는 사람의 길까지 잃고 마는 듯하다. 마음대로 행동하는데도 모든 준칙에 어긋남이 없기란 결단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여금 대로(大路)를 걷게 하면 어떨까. 일천하에 드러나도 서로가 기분 좋을 수 있는 명명백백한 길. 그 환하고 깨끗한 길을 나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받았으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살이의 이치인 것을 주의하며 살

아간다면, 청림이란 그리 먼 곳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은
고객센터에 꼭 전화를 걸어야겠다.